

10년만에 하만 영업이익 30배 이재용 회장 '미래 먹거리' 결실

〈삼성전자〉

이 회장, 하만 9조대 M&A 결단
작년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카메라 모듈 등 전장역량 강화



삼성 하만의 최신 전장 솔루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전 전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9조원대 대형 M&A 결단을 내려 인수한 하만이 삼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다. 당시 시장의 우려를 뚫고 인수한 하만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인수 첫째 대비 30배 뛰는 등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은 지난해 매출액 15조7833억원, 영업이익 1조531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두 역사상 최대치다.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작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2017년(매출액 7조1034억원·영업이익 574억원)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2배로 뛰었고 영업이익은 30배에 가깝게 올랐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9.7%로 나타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이 회장의 통큰 결단과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장을 점찍고 하만 인수

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하만은 가전과 모바일 등 완제품은 물론 반도체·이동통신·디스플레이·전자소자 등 부품 경쟁력까지 갖춘 삼성의 역량과 만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2016년 당시 하만의 인수가 9조4000억원으로 한국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만 인수는 미래차 전장 부품에서 미래 먹거리의 기회를 찾으려는 삼성과 전장 부품에 I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시키려던 하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삼성전자는 하만의 전장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 하만은 지난해 12월 15억 유로(약 2조6000억원) 규모로 독일 ZF의 첨단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부를 인수했다. ZF의 ADAS 사업부는 자율주행용 스마

트 카메라 모듈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20년 이상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를 축적, 삼성 하만의 자율주행 통합 운용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전자는 헝가리에 1억3118만 유로(약 2300억원)를 투자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구개발(R&D) 센터 및 생산기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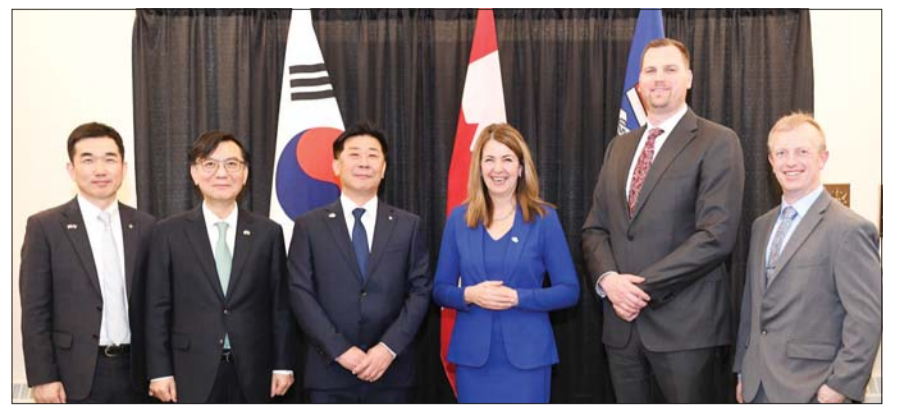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하만 인수를 마무리한 이후 2022년 독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기업 '아포스테라', 2023년 미국 음악 검색 플랫폼 '룬'을 하만 산하로 품었다. 지난해에는 미국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 인수를 통해 초프리미엄 브랜드인 바워스앤윌킨스(Bowers & Wilkins)를 비롯한 전설적인 브랜드를 인수했다.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는 B&W 스피커 부문 및 데논, 마란츠, 풀크 오디오 같은 글로벌 프리미엄 오디오·카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하며 세계적인 오디오 명가로 입지를 강화했다.

삼성은 "하만의 오디오 분야의 기술적 깊이와 삼성전자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고객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최상의 사운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임기모 주캐나다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주수상(왼쪽에서 네 번째), 조셉 스카우 앨버타주 경제무역부 장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한화그룹과 앨버타주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그룹

한화그룹, 캐나다 앨버타주 포괄적 사업 협력

앨버타주 거점 산업 생태계 확장
그룹 차원 'CPSP' 수주 확보

한화그룹이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와 에너지·방산·조선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사업 협력에 나섰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과 연계해 현지 산업 파트너십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과 방산·조선 공급망 구축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 주정부 청사에서 앨버타주 정부와 상호호혜적 투자 기회 발굴과 장기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MOU는 개별 사업 협력을 넘어 앨버타주를 거점으로 한 중장기 투자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함께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화에너지,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파워 등 주요 계열사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해

석유, LNG, 수소, 탄소 포집·저장(CC S), 방산, 조선 분야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MOU의 핵심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과 관련 산업 성장, 공급망 안정성 강화다.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등 자원 교역 확대를 통해 협력 기반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암모니아 기반 청정에너지 사업과 탄소 관리 인프라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방산 협력 확대 역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캐나다 국방산업전략(DIS)이 목표로 하는 자주적 산업 역량 확보와 장기 유지·보수 및 운용 능력 강화, 지역 기반 방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 주수상, 조셉 스카우 앨버타주 경제무역부 장관, 임기모 주캐나다 대사, 이재규 한화에너지 대표이사와 한화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원관희 기자 wkh@

K-조선, 쇠빙선 시장 개척... 특수선 수주 탄력

HD현대중공업, 국내최초 쇠빙선 건조계약
전통적 강국들과 경쟁에서 우위 점해

HD현대중공업이 스웨덴 해사청과 쇠빙전용선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조선소 최초로 해외 쇠빙선 시장에 진출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극지 자원 개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쇠빙선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스웨덴 해사청(SMA)과 3억4890만달러(약 5148억원) 규모의 쇠빙전용선 1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은 가격 경쟁력과 납기, 기술력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

으며 수주에 성공했다. 선박은 오는 2029년 인도될 예정으로, 스웨덴 발트해에서 쇠빙 지원과 선단 운항 보조, 예인 및 빙해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수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쇠빙선 분야 전통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확보한 성과로, 국내 조선소가 해외 쇠빙선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스웨덴한국 대사관과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의 지원이 더해진 민관 협력 성과로도 평가된다.

쇠빙전용선은 해빙을 분쇄해 항로를 확보하는 특수선으로, 강화된 선체 구조와 높은 추진력, 빙해 대응 선형 등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26m,

배수량 약 1만5000톤 규모로 '폴라클래스(PC) 4' 등급의 쇠빙 능력을 갖춘다. 이는 두께 약 1~1.2m 수준의 해빙을 연속적으로 깨며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전기추진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쇠빙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수선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쇠빙 기능이 요구되는 합점과 특수목적선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이번 수주는 당사의 쇠빙선 건조 역량과 사업 통합 시너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특수선 분야에서 신규 수출 시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HD현대중, 美 데이터센터 전력시장 진출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 발전설비 공급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 공략에 나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겨냥해 엔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혔다는 평가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기업 아페리온 에너지 그룹(AEG)과 20메가와트(MW)급 '힘센엔진' 기반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

다고 22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684MW로, 금액 기준 6271억원에 달한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이 체결한 발전용 엔진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해당 물량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으로, 회사가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20MW급 힘센엔진은 대용량 중속 엔진으로, 높은 발전 효율과 신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빠른 기동성과 안정적인 부하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24시간 무중단 운전이 요구되는 데이터센터 환경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계약은 HD현대중공업이 기존 선박용 엔진 중심에서 나아가 데이터센터용 전력 발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힘센엔진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산업용 전력, 비상 및 보조 전원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엔진 기술과 설비 구축·운영 역량을 결합해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삼성·LG, AI 중심 미래 청사진 제시

2026 월드IT 쇼

삼성 디스플레이·모바일 제품 소개
LG 홈·모빌리티 등 AI 경험 강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6 월드IT 쇼'에서 AI를 앞세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모바일 중심의 기술 혁신을, LG전자는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AI 홈 경험을 강조하며 각기 다른 전략을 드러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월드IT 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가해 차세대 혁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와 스페셜 사이니지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갤럭시 S26 시리즈', '갤럭시 버즈4 시리즈', '갤럭시 확장현실(XR)' 등 최신 모바일 제품을 선보인다. 단순 전시에 그치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AI 기능을 조작하고 결과물을 확인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구성해 기술 체감도를 높였다.

본관에서는 '마이크로 RGB' TV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마이크로 크기의 RGB LED를 미세하게 배열하고 색상을 독립 제어해 섬세한 색상 표현과 높은 명암비를 구현하는 기술로, 기존 OLED·QLED와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내세운다.

모바일 체험존에서는 갤럭시 S26 시리즈 카메라와 AI 기능을 집중 체험할 수 있다. 갤럭시 S26 울트라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와 10배 줌 망원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으로 격렬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 자연어 입력으로 동물 캐릭터를 생성하고 결과물을 LED 월에 전송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LG전자 전시관 내부는 ▲AI 홈 허브 '썬큐 온'과 LG AI 가전 및 IoT 기기들로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체험하는 'AI 홈' ▲가전을 항상 깨끗하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구독 케어 솔루션을 소개하는 '구독 광장' ▲AI 가전의 핵심 부품 기술력을 강조한 '테크 라운지' ▲TV, PC, 모니터,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홈오피스 공간에서 AI 홈 허브 '썬큐 온'을 중심으로 AI 가전과 IoT 기기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돼 상황에 맞게 자동 제어되는 AI 홈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AI 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슈필라움'을 전시해 AI 홈 경험이 차량 등 이동 공간으로 확장되는 미래 모습도 소개한다. AI 홈 허브 '썬큐 온'을 기반으로 집과 차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고객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일관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